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1>

“분수 지키며 산 속에 사는 것이...”

효봉 선사(曉峰禪師)에게 보낸 답서

편지를 받은 지 오래되어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답신을 보내지 못했으니, 나의 허물이 실로 작지 않습니다. 법체가 항상 시절에 따라 만중(萬重)하시며 또 사내(寺內)도 두루 평안하시니, 우러러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법우(法友 한암 스님 자신을 가리킴)는 작년 동지달 초순 무렵에, 새벽에 문밖을 나가다가 발을 헛디뎠서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누워 지냈습니다. 아직도 완쾌하지 못하여 기혈이 쇠약한 것이 팔구십 노인보다 더합니다. 상황이 그러 한데 무슨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는 그저 스스로 즐겼던 분수를 지키면서 깊은 산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분수에 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란 앞날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석장(錫杖, 주장사. 선종사원에서는 입방, 移居의 의미로 쓰인다)을 옮긴다면 귀사(貴寺)에 갈 뜻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가서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량(海藏)하시어 주시고, 일은 제쳐두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었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술년(1946년) 2월 초3일 한암은 절하고 답서를 올립니다.

<추신> 대중스님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문후(問候)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향봉(香峰)스님은 지난 가을 탄허(呑虛)와 함께 남방에 있었습니다. 근래 편지를 받았는데, 월명암(月明菴)에서 동안거를 났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효봉(曉峰) 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보낸 해는 1946년 병술(丙戌) 음력 2월 초3일로 상원사에 계실 때이다. 그리고 효봉 스님은 통합 종단 때 종정을 역임한 고승으로, 평양 고보(高普)와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판사를 지냈다고 한다. 38세에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으로 출가하여 석두스님을 은사로 수

계했다.

한암 선사의 답서로 미루어 본다면, 효봉 스님이 한암 선사께 ○○(寺)로 옮겨서 법을 퍼 주셨으면 하고 청을 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한암 선사는 “작년 동지달 초순 무렵, 새벽에 문밖을 나가다가 발을 헛디뎠서 허리와 팔을 다쳐서 겨울 내내 누워 있었고, 아직도 완쾌하지 못하여 기혈이 쇠약한 것이 팔구십 노인보다 더한데 무슨 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나겠느냐”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나는 그저 스스로 즐겼던 분수를 지키면서 깊은 산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분수에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으니, 만약 어디로 옮긴다면 귀사(貴寺)로 갈 뜻이 있으니, 이 일은 놔두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그런데 효봉 스님이 한암 선사께 어느 사찰로 이거(移居)해 달라고 청한 것인지는 효봉 스님의 편지가 없어서 알 수 없다. 한암 선사가 효봉 스님에게 답장을 보낸 것은 1946년 음력 2월 초이다. 이 무

효봉 스님의 이거 요청에 대한 답

이거처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추신 통해 대중에게 문후와

향봉·탄허 스님의 소식 전해

렵 효봉 스님은 1946년 동안거 때부터 1950년 여름까지 5년 간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으로 있었다. 그 이전에는 송광사 삼일암에 계셨다. 송광사 조실이나 방장으로 오셔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야총림 방장으로 있으면서 해인사로 이거(移居)해 달라고 청한 것인지는(그렇다면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알 수는 없으나 두 곳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추신>에서 한암 선사는 대중스님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문후(問候)를 올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또 향봉 스님(香峰, 효봉 스님의 師弟)은 지난 가을 탄허(呑虛, 수제자)와 함께 남방(경남지역)에 있었는데, 근래 편지를 받았는데, 월명암(月明菴)에서 동안거를 났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소년병 전사자 3260위 위패 모시고 새벽마다 예불 40년 ‘성불염원’

호국의 달에 만난 박태승 법사 (풍기 심우원 상임법사)

포화 속으로 들어간 17세 소년

다 죽을 판이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 남한은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한 달이 좀 지난 8월초에 이미 전 국토의 90% 이상이 적에게 넘어갔다. 남은 곳은 오직 낙동강 이남부터 부산까지. 소위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열일곱 살 소년이 무엇을 알았을까? 사흘 전에 입대한 형의 뒤를 따라 군인이 되었다. 말이 군인이지만 그냥 맨몸으로 전장에 던져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생략한 채 총을 들고 전선에 투입 되었다. 이름은 박태승(朴泰承) 군번은 0350115.

그렇게 전쟁 중에 소년병이 되어 신령 지구와 영천 지구 전투를 비롯해 서울 수복, 38선 돌파, 평양 입성, 평북 박천까지 진격해 올라갔다. 혹독한 전쟁터에서 그래도 승승장구하며 복직하던 기세는 중공군의 개입을 변곡점으로 다시 남하해야 했다. 그러던 중 형은 강원도 소양강 지구에서 전사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병력이 부족해 군에 남아 있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다 치루고 1955년 2월에 전역했다. 6년 만에 돌아 온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의 슬픔뿐이었다. 결혼 1년 만에 입대해 전사한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을 ‘청상’ 이 된 형수가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만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통한이 아니던가. 그런 판에 형수는 시동생을 장가보내고 아이들을 낳으면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겠다고 했다. 눈물을 머금고 형수를 밀쳐 내어 새 인연을 만나게 했다. 형수의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가 되었겠지만 형과 조상님 별 면목은 끝내 없는 노릇이었다.

살아야 했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 험벗고 굶주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보다 큰일은 없는 법. 전쟁 중에 소년병이 되어 중학교 2학년이 학력의 전부였으니 별 뾰족한 수도 없었다. 막노동과 풀따기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해야 했다. 그러다가 불교를 만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못 배우고 가난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졌던 삶에 새로운 목표와 희망이 생긴 것이다.



40년째 매일 새벽예불을 올리며 참전소년병전사자의 해탈성불을 기원하는 박태승 법사.

불서 읽으며 원망을 희망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에 박태승 법사가 정착한 것은 나이 40에 들 무렵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떠돌다가 잠시 닳은 내린 곳이라 생각했는데 평생의 터전이 됐다. 풍기에서 불교를 만남으로써, 먹고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에게 풍기는 복전(福田)임에 틀림없다.

“늘 역을하고 원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인가? 누가 이렇게 만

17세에 소년병으로 6.25 참전

전역 후 고난 속에서 ‘불교’ 만나

불서 읽고 삶에 대한 생각 달라져

소년병의 한 풀어주기로서 원

기도는 단순 극락왕생 아닌 성불염원

1974년 풍기불교법우회 창립

법명 ‘서주(西舟)가 곧 평생 화두

“소년병은 정식 군인, 학도병과 달라

예우 없고 실존마저 인식 없어”

전국에 소년병 위한 현충시설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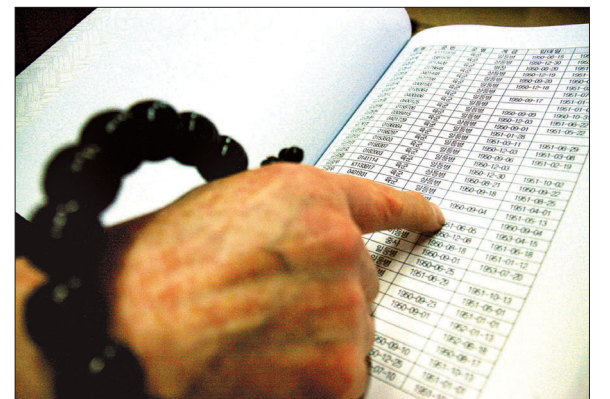
들었던 말인가? 뭐 이런 생각에 세상사는 게 결코 즐겁지 않았죠. 어렵게 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불교 책을 조금씩 보게 되었는데, 무슨 책이었던지 기억은 없지만 그 책들이 내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돌려주었어요. 그 원망과 한이 부모 탓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죠. 어떤 부모가 일부러 자식에게 가난과 무식을 물려주겠는가 말입니다. 또 하늘의 뜻인가? 하는 의문에도 아니라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렇게 생각을 굴



심우원 법당에 모셔진 태극기와 참전소년병 위패.



1952년 12월 미8군 제45보병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박태승 법사(오른쪽).



6.25참전 소년병들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부.

려가다가 ‘모든 게 나의 문제’라는데 이르렀고 ‘그렇다면 답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니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살아 있는 한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자각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소년병 시절의 기억들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의 통탄을 풀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박태승 법사는 전사한 소년병전우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일 기도를 했다.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새벽예불을 하며 전우들의 넋을 달래는 것이다.

“나는 전우들의 영혼이 중음신이 되어 구원을 떠돌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천도하여 극락에 보내고 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도윤회의 굴레를 따라 이미 다른 모습으로 나기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내가 먼저 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극락왕생의 발원이 아닙니다. 어느 생에서든 해탈 성불하여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박태승 법사의 기도도량은 풍기읍내에 위치한 ‘심우원(深牛苑)’. 재가불자들의 신행모임인 풍기법우회의 법당이다. 풍기법우회는 박태승 법사가 풍기에 정착해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에 창립된 단체다. 물론 박 법사의 노력이 컸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불심 깊은 도반과 법우들이 많아 현재도 60세 이상 연배가 모이는 법우회, 60세 이하의 모임인 달마회, 여성불자들의 모임인 구도회가 매월 법회를 보면서 신행하고 있다.

현재의 법당은 5년 전에 마련한 것인데 그때부터 박태승 법사는 아예 법당 요사채에서 생활한다. 아미타 삼존불이 여법하게 모셔진 법당에서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고 소년병 전우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으니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서 모셨어요. 늘 죄송한 맘이었죠.”

법당 중앙에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졌고 그 왼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다. 그 아래 ‘참전소년병영령3260위’ 위패가 있다. 3260명의 명부도 한 권 놓여 있다. 명부에는 성명, 군번, 계급, 입대일과 전사일 등이 적혀 있다. 2011년 국방부가 집계한 2573명과 박태승 법사가 확인한 687명을 합한 것이다.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콘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동사업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